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 마가복음 서론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마가복음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제닝스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이 세션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시작할 수 있어 기쁩니다.

여기 제가 올린 슬라이드에서 마가복음의 예술적 묘사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각 복음서에는 전통적인 상징이 연관되어 있고, 이 그림을 보면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사자가 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표징으로 선택된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그냥 현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볼 장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복음의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살펴볼 서론적 사항, 주제, 저자,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보세요. 그저 그 단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음에 함께 마가복음 1장을 읽을 때, 적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CS 루이스의 인용문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코르크 나사에서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품을 판단하는 첫 번째 자격은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도록 의도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복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좋은 장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가 그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우리의 주요 출처는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란 무엇일까요? 그 용어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왜 복음서라고 불리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고대 영어인 Godspell에서 유래했는데, 그리스어 euangelion의 번역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이나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euangelion이라는 용어는 고대 영어에서 Godspell로 번역되고 오늘날 영어에서는 Gospel로 번역되는데, 좋은 소식이나 좋은 소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uangelion이라는 용어는 종종 위대한 승리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

는 로마 통치자들이 이긴 전투나 일어난 승리, 황제 취임식에 대해 퍼레이드를 할 때 이 euangelion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 그들은 euangelion을 가졌을 것입니다 . 그들은 좋은 소식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을 보면, 산 위에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사야의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euangelion이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 유앙겔리온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
시온에게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자들. 이사야에서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포의 관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다음에 복음, 복음의 시작에 대해 말할 때 1장을 볼 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선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유 앙겔리온 , 예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믿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앙겔리온을 선포로 이해하는 것이 변형되기 시작했고, 장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된 버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들과 연관된 복음서라는 제목을 얻게 됩니다. 복음서가 이들과 연관된 이유는 아마도 마가복음 1:1과 마가가 자신이 하는 일이 euangelion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 그래서 이 아이디어 , 말하자면 복음서라는 장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글썄요, 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것은 역사적 입니다 . 그것은 역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전통에 의지합니다. 그들은 다른 출처에 의지합니다. 그들은 목격자에게 의지합니다.

만약 관심이 있다면, 예를 들어 루가 복음서의 처음 네 구절을 살펴보세요 . 루가가 역사가로서 자신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서로서, 그것은 역사적 맥락, 1세기 팔레스타인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날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 각 복음서의 저자는 자신을 역사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신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글은 우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행적, 그의 말씀,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주장, 그 주장에 대한 그의 입증을 실시간으로 일어난 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복음서들이 서사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단지 말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어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라고 말할 때, 허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이미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제시되지만, 그것들은 서사라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줄거리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소개되고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진행되는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관점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편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의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편견을 틀렸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복음서는 매우 편향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편향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묘사하는 이야기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매우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야기의 요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 대한 학문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생각할 때, 불행히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내가 방금 공유한 것, 즉 역사적 품질, 이야기적 품질,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관련된 신학적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학문의 전반적인 상황은 내가 방금 언급한 것 중 일부, 특히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첫 번째 요점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현대 성경 학문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복음서의 역사적 진실성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신약 학자 루돌프 볼트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초기 기독교 자료는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거나, 더욱이 단편적이고 종종 전설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삶과 성격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경 학문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복음주의적 관심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예수가 인간 이상의 존재였다는 개념을

거부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은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오랜 세월에 걸친 복잡한 신화 만들기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자주 듣는 표현은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역사의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용 가능한 것은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해 말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글쎄요, 항상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신약 학자들과 교회는 복음서의 역사적 진실성을 고수했지만, 계몽주의의 시작과 합리주의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면서, 무언가가 합리적으로 반복될 수 없다면 의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음서의 역사성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잠깐 논의하고 싶은데, 합리주의 철학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방식이나 사람이 복음서를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복음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주장에 노출된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18세기와 19세기의 다양한 작품을 읽은 우리 중 일부는 소위 역사적 예수의 첫 번째 탐구에서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며, 사랑과 사람들의 무한한 가치를 선포한 윤리적 교사라는 주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자유주의 예수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탐구에서 일어날 일은 예수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 생각에 맞게 복음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합리적 사고에 반하기 때문에 기적은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합리적 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제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물 위를 걷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특정한 제안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해안을 걸었지만, 그의 발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앨버트 슈바이처는 18세기와 19세기에 나온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 모든 연구에는 하나의 공통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가 역사적 옷을 입은 현대 신학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연구는 저자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적 예수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경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가 누구이고 마가가 예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예수를 나처럼 보이게 하거나 당신과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맞는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예수가 누구였는지 설명하는 방법으로 복음서를 사용하려는 이른바 첫 번째 탐구가 시도된 후, 우리는 20세기에 접어들었고 이른바 무탐구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루돌프 볼트만과 다른 사람들이 관찰한 것으로, 역사적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진적인 회의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종교 학교의 역사로 알려진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 학교의 역사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종교적 성장은 진화적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러한 사고의 틀에 따르면 유대인 인물로 시작하지만, 교회가 그리스계로 확산되자 이 예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갈릴리 예수는 이교도적 개념으로 주입되었고, 심지어 신적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탐구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종교적 접근의 역사의 열매일 뿐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실제 예수에 대한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고 이 진화 과정에 대한 것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볼트만은 진정한 예수에 대해 그가 존재했고, 어떤 종류의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또는 두 번째 탐구라고 불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50년대에서 70년대의 인물들이며, 이런 탐구 없음,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생각, 복음서가 예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한 반응입니다.

케 세만 과 다른 사람들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더라도 복음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우리는 이제 80년대,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를 일컫는 세 번째 탐구로 알려진 시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방법론에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번째 탐구에 속하는 광범위한 의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세미나와 같은 단체의 의견은 20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또는 누구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으며 NT 라이트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오늘날 더 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항상 복음서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가 합법적이라는 방법입니다.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반면, no 퀘스트는 비관론이 있다고 말하고, 세 번째 퀘스트는 낙관론이 있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할 겁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에 대한 질문은, 1세기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원래 맥락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원래 독자들이 이해했을 방식으로 복음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즉, 아마도 지금 당장 여러분 각자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저는 지난 몇 분 동안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특히 서양 사상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의 신뢰,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역사적 진실성에서 지금은 대부분 의심이나 적어도 약간의 회의주의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입니다.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성경 학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평가와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출처로 받아들이는가? 어떤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는가? 우리는 복음서에 어떤 가치를 두는가? 몇 분 후에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대한 이러한 결정의 핵심에는 여전히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는 복음서의 1세기 예수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수는 21세기의 예수처럼 보입니까? 저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지배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전제가 우리의 이해에 들어옵니다.

기적을 부인하면,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믿을 것입니다. 악마의 존재를 부인하면, 엑소시즘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빈 슬레이트로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접근하면서, 나는 그것을 읽고 믿음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통해 그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이유와 소망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표면을 살짝 긁어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사용하면, 복음서 자체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은 무엇입니까? 저는 앞서 복음서가 역사적이며 역사적으로 표현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그것들은 우리가 바이오스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고대 역사 기록의 매우 특정한 유형으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일종의 고대 전기입니다. 이것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드문 장르가 아닙니다.

복음서가 예수를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재밌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예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나, 예수를 주어로 하지 않거나, 예수가 말씀하지 않는 문장을 강조 표시하세요. 강조 표시할 시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의 거의 모든 문장은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작은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항상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특징을 살펴보면,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 하나는 목격자 증언이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을 보호자, 예수 이야기의 전달자로 여겼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목격자 증언이 지지되고 존중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음서 기자는 역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름, 장소, 날짜 등 검증 가능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제시되는 세부 사항의 수준은 역사적으로 이해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모호한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셋째, 정확한 전달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과 말씀이 이상적이지 않거나 말이 어려워 보일 때조차도 그 사건과 말씀이 저장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봅니다. 예수가 무언가를 알지 못하거나, 제자들이 지루해 보이거나, 심지어 제자 중 한 명이 배신자로 보일 때, 예수의 영웅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서가 역사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것들은 놀랍게 들릴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단순히 신화를 만드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 단어들을 흐릿하게 넘기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그것들이 있고,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과 어려운 사건을 보존하는 것은 역사적 버전의 일부입니다. 또한, 이 아이디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후기 교회 논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가 후기 교회의 산물이고, 이러한 발전의 진화라면, 초기 교회에서 토론되고 논쟁되었던 일부 사건이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 중 일부는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2세기와 3세기 교회 논쟁에서는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표면을 굽어보면, 복음서가 기록한 사건과 말씀 면에서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순이 있지 않나요? 복음서 사이에 모순이 있지 않나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역사적 진실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질문이지만, 자연스러운 질문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모순이란 무엇이고

, 단순히 일반적인 역사적 관행은 무엇일까요? 모순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되돌아가는 문제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읽어봐도 때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곧바로 매우 유사한 점이 있지만, 머리를 긁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점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모순일까요? 저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는 필사본이 아닙니다. 비디오테이프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역사 기록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현대 역사 서술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이 모순을 구성하는지와 무엇이 일반적인 역사적 관행인지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독자와 마가복음 수신자가 공통적인 역사적 관행에 맞는 것으로 쉽게 이해했을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 복음서 필자들과 마가복음 필자들도 다르지 않게 의역에 참여할 것입니다.

abscissima 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동사 대 가로 좌표 vox, 가로좌표 라는 아이디어 verba , 실제 단어 또는 실제 음성. 고대 역사의 기준은 결코 abscissima가 아니었습니다. verba , 실제 단어이지만 항상 실제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가는 편집이 있더라도 화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결코 온전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abscissima 의 예 verba 는 마가복음 1534년판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아람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람어로 외치실 때, 우리는 그 아람어를 얻습니다. 우리는 실제 단어를 얻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한 형태인 코이네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면, 그가 자라나고 살았던 언어였을 아람어라면, 정의에 따르면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대부분 코이네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언어 분야에서 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마다 해석 행위가 있습니다.

해석이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내려야 할 결정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좌표 를 얻는다 마가복음 15:34에 있는 동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면 우리가 왜 *abscissima*를 얻는지 그 이유를 주장하겠습니다. *verba* .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가 *Eloi Eloi* 의 시작입니다. *Eloi Eloi* 는 아람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종종 우리는 그 진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때문에 아람어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그 진술의 힘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마가복음에는 다른 강력한 진술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 생각에 이것은 마가가 작가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34를 보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할까요? 그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글썄요, 우리가 아람어를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Eloi Eloi*는 횡설수설하고 탈수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데, 엘리야와 매우 흡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 없다면, *verba*가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abscissima*

를 연습니다. *verba* . 하지만 마크는 다른 고대 작가들이 하듯이 종종 실제 음성인 *abscissima vox*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서사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작가로서 마가의 역할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 저는 마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고, 예수와 그의 삶의 사건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실제 사건과 실제 말뿐만 아니라 그 해석도 묘사했고, 그 해석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로서 마크가 내리는 선택을 봅니다. 마크는 자신이 넣을 것과 빼낼 것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선택은 일반적인 역사적 관행이었을 것이지만, 모순으로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한 작가가 여러 개인을 언급하고 다른 작가가 한두 명만 언급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까? 아니면 선택의 표현입니까? 선택성과 생략이 있습니다. 복음서 작가들은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시하고 싶은 것에 관해 선택을 했고, 마가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 예를 들어, 마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마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한 진술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있을 때 한 진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 일곱 가지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있을 때 한 위대한 진술입니다.

흥미롭게 도, 이 일곱 가지 진술은 모두 한 복음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개별 작가들이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 중 일부를 하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한 작가가 예수께서 "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마리아와 요한이 가질 새로운 관계의 소개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무엇을 넣고 싶은지, 그 절정에서 그들이 추진해 온 주제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모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역사적 관행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가의 일부를 살펴보기 전에 언급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크라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 아크라흐는 소화의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수사적 장치입니다.

그 말은 더 큰 것을 취한다는 의미이고, 더 큰 이야기나 더 큰 연설이나 더 큰 사건을 취하여 더 작지만 본질에 충실한 것으로 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고대 역사가와 마찬가지로 복음서 기자들이 무언가를 단순화하거나, 강조하거나 쉽게 기억하거나 제시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나 패키지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자는 아크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대 역사가, 특히 고대 전기 작가와 같은 복음 작가의 경우, 사건의 연대순은 항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연대순 정확성은 항상 우리의 사건 사고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얼마 전 책을 읽었는데, 역사적 전기였고, 일어나는 플래시백이 많았거나 삽입된 테마를 소개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대 전기조차도 항상 정해진 연대기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히 고대 역사 작가와 고대 전기 작가에게 해당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사건을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허튼소리는 아닙니다.

그 사건은 발생했어야 합니다.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그 사건을 순서대로, 아마도 주제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의 비유는 한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사역 전반에 걸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확신하지만, 마태복음은 실제로 한 장에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마가가 이런 배열을 하는 가장 큰 예 중 하나는,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그의 복음을 살펴보면 이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사적 기법입니다. Markin Sandwich는 매우 간단합니다. Mark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그는 고기를 넣습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 번째 이야기를 완성한 다음 첫 번째 이야기, 즉 빵의 아랫부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적 기법, 이 마킨 샌드위치를 보세요. 마킨은 사건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삽입하고, 그 사건에 대해 완전히 이야기한 다음, 첫 번째 사건을 완성합니다. 이제, 그것은 수사적 기법입니다.

마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두 가지 별개의 것을 제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핵심은 첫 번째 사건에 어떤 종류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이 두 사건이 반드시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생한 수사적 기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무대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크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마크가 역사적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고대 역사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선택적이고, 생략하고, 포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고대의 맥락이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장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맥락에서는 말이 되지만 고대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마태, 누가, 요한처럼 마가가 선택을 하는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말하는 것의 역사적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하는 이야기의 훌륭함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마가는 신약에서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저술에 사용했다고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가가 초기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발자취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글썄요, 그의 문학적 스타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마가복음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서사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 *immediate*, 또는 영어 단어 *immediate*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42번 사용되었습니다. 42번, Mark는 *immediate*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Matthew는 5번 그렇게 합니다.

루크는 한 번만 그렇게 합니다. 즉시, 곧바로, 바로, 그 다음, 그 다음이라는 이런 사용은 서사를 계속 움직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현재 시제와 현재 시제 동사에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제 동사가 사용되면 이상한 관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생함을 느끼게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마가는 종종 사건을 함께 그룹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도전은 종종 뭉쳐 있습니다. 엑소시즘도 뭉쳐 있습니다. 기적도 뭉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이 사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종종 주제나 주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마크 샌더슨 주제를 언급했고, 복음서로 들어갈 때 이런 주제를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3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삼중주를 좋아합니다. 그는 숫자 3과 패턴과 3개 세트, 3개의 보트 장면, 3개의 수난 예언 주기를 좋아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많은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신의 아들. 고통받는 강력한 신의 아들. 아이러니한 생각이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크 슈트라우스는 그의 책인 마가복음에 대해 4복음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많이 지배하는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마크 스트라우스는 종교 지도자들이 외부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내부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우화는 천상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이러니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를 묘사한 것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 혹은 마가가 강조하는 더 나은 표현 방식은 예수의 인간성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는 연민, 분노, 슬픔, 사랑, 분노,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겐세마네에서 불안,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의 재림 시기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인간성이 있습니다 . 서로 손을 잡고 , 우리는 또한 권능과 권위를 봅니다.

1장에서 바로 시작되는 것 중 하나는 다음에 살펴볼 예수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가르침, 치유, 엑소시즘, 기적. 우리는 그에 대한 신비, 메시아적 비밀, 예수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도 조용히 하는 이 아이디어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진전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중 하나는 예수가, 아니 마가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마가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예수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듯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고백으로 넘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백부장의 선포로 넘어갑니다 . 마가복음에 대한 생각을 마무리하기 시작하면서 주의해야 할 다른 특징들도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적대자는 악마로 소개되지만, 거의 동시에 소개되는 종교 지도자들도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걱정하는 듯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의 인기를 위협합니다. 성전의 파괴와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매우 모호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고, 부르고, 열두 명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큰 신뢰를 두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십니다.

하지만 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제자들에 대한 묘사가 가장 부정적이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종종 예수를 오해한다. 그들이 메시아의 고통받는 역할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제자들의 회복이 암시되어 있지만, 마가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완전한 회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동산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제시됩니다. 예수님은 끈기 있게 버티셨지만, 제자들은 도망칩니다.

어느 정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가 따르는 것의 패러다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의 단점이 사용되며, 마가복음을 볼 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학적 주제 중 일부는 하나님의 왕국이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 가르침에는 현재와 미래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국은 왕이 현존하기 때문에 현존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왕국과 미래의 설립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가 종 메시아라는 생각을 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아들, 사람의 아들, 메시아이지만,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죽을 사람, 속죄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런 제목의 재정의가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종종 이사야 53장을 염두에 두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자에 대한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본문 자체에서 본문이 익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생각하면, 저,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자체에서 저자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동일시는 항상 바울과 베드로의 동반자였던 요한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4세기경의 초기 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는 2세기 전반에 살았던 교회 지도자 파피아스를 인용하며,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

또는 번역자였으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정확하게 전한 만큼을 기록했지만,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가 베드로에 대해 말했듯이, 이것이 인용문이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가르침을 각색하고 주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마크는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는 데 실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우세비우스가 거기서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인물 존 마크에 대한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았습니다.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제롬, 이에 대해 초기 교회에서는 큰 합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의 연관성은 많은 신약 학자들에 의해 지금은 대체로 무시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면 흥미롭고,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중요성이 다소 더 강조됩니다.

1장 16절에 이름이 나오는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와 16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나오는 마지막 사도인 베드로에 대한 책받침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태, 누가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내용인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의 이야기를 할 때 겸손함을 보인 것이 아닐까,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극찬을 조금 누그러뜨린 것이 아닐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초기 교회에서 마가복음의 중요성은 분명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신약학자인 마틴 헨켈이 이에 대해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가장 초기 사본에서 그것이 본문 위에, 사본 위에 있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제목은 꽤 일찍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Hingle은 주장합니다. 사실, 그것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누가 저자인지 식별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Hengel의 주장은 이 제목이 가장 초기의 사본 중 하나에 없었다면, 우리는 마가 복음이 다른 서두, 즉 이 사람에 따른 복음이나 그에 따른 복음을 볼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꽤 일찍 잠긴 것 같다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Hingle은 주장합니다. 또한, 질문은 항상 마크가 당신이 만들어낼 인물인가? 요한 마크가 당신이 복음서와 연결할 인물인가? 그는 신약성서의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는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마가의 저자에 대한 의문이 거의 증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들은 모든 사람 중에서 마가를 선택했을까요? 당신은 심지어 옷을 벗고 도망치는 남자와 함께 정원에 있는 이 마가의 인물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마가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와 베드로전서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입니까? 초기 교회는 일찍이 그렇다고 말했고, 저는 증거가 여전히 그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마가는 로마 교회, 아마도 로마에서 편지를 썼다고 항상 생각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로마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전통에 근거합니다.

그것의 연대는 50년대와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가장 이른 연대 중 일부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 늦은 연대를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순교 무렵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목격자 중 일부가 죽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해가 급증하고 박해의 일부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이 꽤 일찍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60~70년경이었을 겁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마지막 사항은 마가복음의 더 큰 이슈 중 하나를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끝나는가입니다. 오늘날의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지만, 많은 현대판 성경에는 그 주위에 거대한 괄호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본 중 일부에서 원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려는 과정을 텍스트 비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러 사본을 살펴보고,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다른지, 어느 것이 더 오래되었는지, 어느 것이 더 강력한지 확인하는 비교입니다. 전체 방법론이 사용됩니다.

발견된 것 중 하나는 마가복음 16장의 9절에서 20절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본 중 일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6:8절까지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바로 그 과정이 어떤 면에서 9절에서 20절에 반대합니다.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많은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으므로 마가복음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그렇게 빨리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스어 스타일은 8절에서 9절로의 전환으로 여겨지는데, 읽어보면 8절의 주제가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9절은 예수를 주어로 가정하지만, 아직 명확한 전환은 없습니다. 9절은 독자가 마리아 막달레나를 모르는 것처럼 들리는 방식으로 그녀를 제시하지만, 그녀는 15장 초반에 언급되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 중 하나는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부활한 모습을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게 짧은 결말의 문제입니다. 짧은 결말에는 부활의 모습이 없고, 복음서에는 부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초기의 신조 진술 중 하나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글썄요, 마크가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많은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선택지는 그가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가 그저 암시하고 있다는 것, 그가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9장부터 20장까지에 있는 것, 또는 그가 부활한 모습을 보였지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그가 하나를 완성하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이론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할지 알려드리자면, 저는 9절에서 20절에 충분한 본문적 의심이 있어서 마가 복음을 주제별로 추적하거나 마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에 대해 의견을 내야 한다면, 마가복음 8절 이후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결말이 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려질 많은 신비가 있고, 마가복음의 결말도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마가복음 서론입니다.